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36권 36호(다해) 2016년 7월31일

[묵상]



<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2016년 7월 31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평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김수중, 이순자 레지나, 이영자 올리아 & 조빈
	(생)김광련 요셉 & 찬현 수산나 가정
주일 낮 미사	(연)고준희 제임스, 이정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정 올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이윤식 베드로, 김윤업 & 장무등 & 김훈규, 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정현아 한나, 민기남 모니카,
	(생)김춘자 막달레나, 황운재 베드로, 박정미 클라라, 박인경 베드로, 김민석 시몬 & 지혜수산나가정, 김다니엘 & 김양금 안나가정, 오명섭 미카엘, 김승환 헨리, 김중훈 마태오, 권오상 바오로 송크리스티나 & 타미 가가미 & 에이든 바오로, 김세민 리디아, 박지상 아우구스틴, 김지훈 대전안드레아, 김무웅 이냐시오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코헬렛 (Ecclesiastes) 1,2; 2,21-23

화답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 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제 2독서 콜로새서 (Colossians) 3,1-5.9-1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루카 (Luke) 12,13-21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7	241	175
봉헌	254	259	270
성체	281	287	284
파견	230	200	200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3. 식민지 시대의 교회(1910~1945년)

3-3. 전시 체제와 교회

또한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에서 활동하는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을 구금하는가 하면,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도 제약하면서 서울교구장직과 대구교구장직 사임을 강요하는 한편, 일본인 교구장으로 교체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뮈텔 주교의 뒤를 이어 서울교구장에 취임한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1883~1974년) 주교와, 드망즈 주교의 뒤를 이은 대구교구의 무세(Mousset, 文濟萬, 1876~1957년) 주교가 교구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쟁 수행을 위한 일제의 식민 정책이 강화되자 서울교구는 조선인 주교가 임명되도록 노력 한 결과, 1942년 조선인 노기남(盧基南, 1902~1984년) 신부가 서울교구의 주교로 서품되어, 최초의 조선인 교구장(vicarius apostolicus)이 되었다. 한편 대구교구에서는 일반 성직자와 신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인 하야사가 구베에(早坂久兵衛, 1887~1946년) 신부가 주교에 취임하였다. 광주교구도 일본인 와키다 아사고로오(脇田淺五郎) 신부가 교구장 대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조선 교회가 로마 교황청과 비밀리에 교섭한 결과 1944년 홍용호(洪龍浩) 신부는 평양교구장에 서품될 수 있었다. 조선인 주교의 출현은 전시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전개된 일이다. 그러나 193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 교회는 박해와 시련을 거치면서 조선인 성직자가 직접 관할하는 교구를 가질 정도로 성장해 갔다.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1940년대 조선인 주교가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제는 교회가 반전 사상을 선전한다는 혐의를 씌우고, 성당에서 바치는 공식 기도마저 일본어로 하도록 강요하였다. 교회 출판물 역시 일본어로 간행하는가 하면, 1939년에는 ‘조선 순교 복자 현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1944년에는 예수 성심 신학교를 폐교시키고, 1945년 초에는 조선 천주교회 기관지 「경향잡지」를 폐간시켰다.

4. 천주교와 타 사상의 만남(1876~1945년)

4-1. 천주교와 전통 종교

개항기 한국 사회의 전통 종교 사상 가운데 유교의 존재가 우선 주목된다. 개항기 재야의 유교 지식인들은 외래의 시대 사조에 대항하여 척사 위정(斥邪衛正)의 논리를 재천명하였고, 이로써 유학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이론으로 재생산되었다. 척사 위정의 논리는 초기 의병 전쟁 과정에서도 저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하여 1877년 평양에 척사 기적비(斥邪紀蹟碑: 1866년에 있었던 제네랄 셔먼 호 사건의 극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가 세워졌고, 1881년에는 척사운음이 다시 반포되어 천주교에 대한 탄압령이 전국에 포고되었다.

<계속>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예 시작 때 결론을 내십니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출을 낸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못한 처지인 사람을 괴롭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는 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상식과 우리 신앙의 진리는 길이 서로 엇갈립니다. 부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소출을 얻고, 그것으로 자신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평화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돈처럼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에 빠져들다 보면, 평화를 청하는 가운데 곧잘 평화를 위해 돈 문제도 해결해주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 목적이 뒤바뀌어서,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보다 재물을 먼저 청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얻을 평화의 근원이 주님이 아닌 재물로 옮겨갔다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야 할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 앞에서 우리를 평화롭게 해 달라고 빌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에 재물이 놓인 이들은 자기 삶을 재물로 평가하고, 하느님의 힘도 재물로 평가하게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이 모두가 내 업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내 삶조차

하느님의 것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언제든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을 쓰는 것도 내 뜻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느님 뜻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꺼이 남을 도우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해지고,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돌보게 됩니다. 평화를 자기 공간에서 찾는 부자를 두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되찾아갈’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내 영혼조차 ‘내 것’이 아니기에 하느님께서 되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 것이니, 우리가 사는 중에 얻고 잃는 것들을 두고 ‘내 것’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미 그 점을 알았나 봅니다. 옛날 경주 최부자 집 가훈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을 모르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 역시 자기 공간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자기 공간을 채우면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함’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탐욕조차도 넘어서야만 우리는 진정 평화로워집니다. 안심할 만큼 재물을 얻어야 오는 거짓 평화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신 만큼 누리고 그분 쓰시고 싶은 데에 쓰시게 해 드리면서 얻는 참 평화. 우리 발걸음은 그 둘 중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한정숙 안나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토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제5회(2016~2017학년도) 장학금 수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학업성적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성당 및 외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생활하는 신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 선발된 수혜학생 6명 : -가나다 순
김지수(Helena), 김지혜(Christina), 김호재(Urisino)
박 John (John), 신 Monica (Monica), 한혜림(Katherine)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식은 8월 7일(주일) 낮 11시 미사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 아침미사 성인복사 하실 분은 본당 수녀님께 연락바랍니다.

◆ 본당 전진성사 안내

본당 전진성사가 9월 11일(주일) 오전 11시에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LA대교구 San Pedro Region 담당)을 모시고 거행됩니다. 전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일시 : 2016년 9월 11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솔리스주교님
- 전진 교육 : 영성피정 이수자
(6월 2일~6월 5일, 신앙성숙과 쇄신을 위한 영성피정)
- 전진신청 마감 : 8월 28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377-7063

◆ 주일학교 견진반 1,2 등록접수...사무실에

- 대상 : 9학년이상 미 견진자
- 시작 : 9월부터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 담당교사 : 서정우, 제니퍼 현, 씨니황

◆ 2016-2017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주일학교 : 초등부 교사 3명
- 한국학교 : 초급 또는 중급 교사 1명
- 밴드부 교사 1명
- 학생 전례부 교사 1명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참가중입니다.

- 일시 : 7월 29일(금)~31일, 오늘주일 4:00 pm 도착 예정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을 모읍니다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등은 물론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의 관심있는 손길을 타야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성전문+현관문+바깥 Gate)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 31일 : * 토남 3반 (미역국 \$3)
-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대우 김병태 김상기 김상규 김성현 김영덕 김현숙 남성철 박광자 신순철 안재만 오진재 육근주 이명렬 이병우 이정분 이형삼 정남형 정훈모 주대중 최미열 한창주	합계:\$3,635
주일미사헌금 : \$2,192	주보광고 : \$240	
성전헌금	김관기 김교복 김대우 김상기 김영덕 김현숙 남성철 박광자 신순철 안재만 이명렬 이병우 이정분 이형삼 정남형 정훈모 주대중 최미열 한창주	합계 : \$2,135
2차헌금(Mission Appeal): \$2,390	감사헌금(한기찬): \$200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한국어 SAT 시험 준비반 여름 특강 중입니다

- 주체 : 한국어 진흥재단, 장소: 강당
- 기간 :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9:30 am~ 12:30 pm

2. 백삼위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14일~8월 28일 매주 일요일 (총 3 회)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3. 백삼위 여름 수학 교실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4. K-Con : 한식, 한국어, K-POP등 한국문화체험

- 기간 : Jul 29~31
- 장소 : Staples Center/LA Convention Center
- 무료입장권(1매당 2인) : 성당 사무실 문의
- 자세한 사항은 www.kconusa.com 참조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 교구 지문날인(Finger Print) 조회 안내

- 일시 : 8 월13일 오전 10시~오후1시
오후 3시~5시20분
- 장소 : 성 아그네스성당 성가대 방
1451 Dana St. Los Angeles, CA90007
- 문의 : 성 아그네스성당 사무실(323-731-4433)

◆ 일상의 삶속에서 하는 9개월간의 영신수련

- 기간 : 2016년 9월~2017년6월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Loyola Institute of Spirituality
480 S. Batavia.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213) 507-1144

◆ 성서 사십 주간 신약성경 개강

- 일시 : 2016.6.21~2016.12.13(7.26~8.23방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점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장소 :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CBLM)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 521-134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김옥찬 수산나 7/17(일) 오후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츄릭 7/9(토) 오후6시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7/15(금)오후7시30분 코코호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7/23(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명렬 라파엘 7/9(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토사 7/16(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딩 7/23(토)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7/19(화)오전11시30분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희경 크리스티나 7/16(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황지영 안젤라 7/17(일) Delton Park 오전10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혜영 아네스 7/9(토) 오후7시 성당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남해나 베네딕다 7/30일 오전 9시 은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17(일)오후1시 Ryan Park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신혜정 토사 7/9(토) 오전1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 7/12(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성체 도둑이 성모님의 종으로 (3)

(이 글의 주인공은 현재 메주고리예에 살고 있는 실재 인물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나오는 공동체 책임자의 이름이나 공동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 자매가 사탄교회의 추종자들의 살해 대상의 주요 인물로서 아직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자매는 교황청 신앙고리성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엄마가 사는 도시에 도착했다. 마치 날아 갔다고나 할까.... 드디어 나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를 꺼안아 볼 수 있었다! 그 자리에는 공동체에서 정말 나를 아껴주고 몇 년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들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이 만남에 동참해 주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는 만난 지 몇 분이 지나기도 전에 마치 어떤 것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가 되더니 오... 아무도 그런 눈초리를 보지 않았으면 싶을 정도로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면 말했다. "네가 나에게서 태어났어도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내 인생에서 확! 꺼져버려 당장!"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 앞이 캄캄해졌다. 내 귀에 들리는 엄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비고 찔렀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차라리 만나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그리워하면서 살 것을... 이제 나에게는 그리워 할 사람 조차도 없었다...

공동체 창설자 C자매는 또 다시 엄마에게 버림받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고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 고통에 젖어 있는 나를 메주고리예에 있는 공동체로 파견하였다. C자매는 나의 상처는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고 오로지 성모님만이 나를 치유해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11 일 정도 머물고 있던 어느 날, 6명의 발현목격증인 중의 한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네티가 성모님의 발현 시간에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나는 성모님의 발현 장소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강력한 뜨거운 힘을 내 온몸으로 느끼며 마치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꼈다. 마치 더 이상 쓰지 못할 상처투성이 심장을 도려내고 새로운 심장이 심어지는 것 같은 수술을 받는 느낌이었다. 나를 낳은 엄마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들,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 보낼 때의 절망감과 지내온 삶 속에 있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치유되면서 흔적조차 없이 아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성모님의 발현이 끝난 뒤 목격 증인 마리아가 그날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향과 기도를 성모님께 말씀 드렸고, 성모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눈이 내 얼굴과 눈빛을 바라보더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했다. "성모님께서 이 자매님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고통을 당신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자매님의 마음 깊이에 있던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성모님께서 자매님의

진정한 엄마가 되어 주신대요!" 나는 성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마리아와 함께 성당 밖에 있는 수도원의 오솔길을 걸어 나오면서 물어보았다. "마리아, 소성당에 있을 때 내게 다른 말도 할 것이 있었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자매님, 그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내 손에는 언제 어디서나 목주가 들려있었다. 목주기도를 통해 내 손을 잡으신 성모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으며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목주기도는 성모님의 손이라고!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모님의 그 손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더욱 힘을 주어 꼭 잡아야 한다고!

나는 오늘도 거룩함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침묵과 겸손의 생활, 순명과 정결함과 인내의 생활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의 하나는 내 온 생애를 주님께 봉헌한 날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나의 모든 것을 공동의 삶을 위해 내놓았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처럼...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이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만은 영원하리라. 아멘!

참고: 현재 이 자매는 평신도로 모든 삶을 성모님께 봉헌한 채, 전 이탈리아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탄주의의 위험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강의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다니며 사탄주의와 사탄 음악에 대한 실체를 증언하고 있으며 그에 대책과 청소년 보호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번역: 남기옥

[교리상식]

미사 때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섞는 것과 성체의 한 부분을 떼어 성작 안에 넣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포도주와 물을 섞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상징하며, 성체와 성혈을 섞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인말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 가경자 테클라 메를로 -

예수님의 참 가족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심신이 매우 지쳤지만 예수님은 열성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모여드는 군중 탓에 식사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복음전파에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어떤 소문을 듣고 왔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3,13-21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베엘제불이 들렸다고 하고,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지만 용서 받지 못할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3,22-30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자렛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집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몹시 기뻐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처럼 의지와 힘이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며 무엇이냐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3,31-35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에 있어 실재를 잘 보지 못하는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에게 철저히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나 자기 자신은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어 넘어야 할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 나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 생각하였던 것이다.”(마르 3,21)
 “하느님의 뜻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요 ()요 어머니다.”(마르 3,35)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숨이 참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성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의욕에 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항상 치열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꿈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좀 뒤쳐져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이영 아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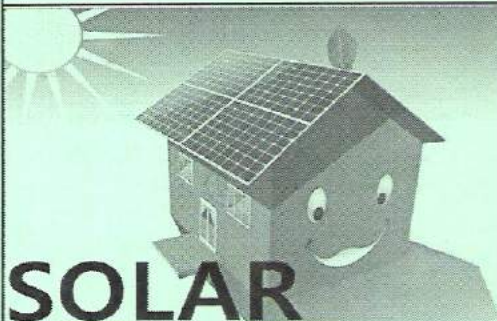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용자 / 채용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쟁)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켄마-

TCPI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I 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티노

16118 Halldale Ave.

Gardena CA90247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